◈며느리 권씨 열전 16-3

국내 최초 천주교 순교자 윤지충의 母, 권상연의 고모 권씨 (추밀공파 29世, 권기징의 딸)

여권신장으로서의 관점

조선 후기에는 부계 중심의 원리가 강조되어 아버지-아들을 중심으로 한 가계 살림이 이루어졌고, 여성은 이제 호주 기재의 순위에서 밀려나 '어머니'로서의 위치가 강조되었다. 이는 여성의 지위를 하위로 내려놓는 것과 함께, 부인에게는 전제지의(家長權)가 없어져 아들의 지시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여성의 권한과 의무가 축소되고, 사회적 책임 대신 아들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보호와 배제의 논리 사이에서 진행되었으며, 여성과 남성의 역할은 안과 밖의 영역으로 분리되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총부권의 약화와 연관이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여성과 제사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안동 권씨 부인은 조선 후기의 여성으로, 유교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저하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에 살았다. 여성들은 이전에는 조상제사에 참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후에는 그 역할이 제한되었다. 과부로 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갔고, 천주교를 믿으면서 큰 변화를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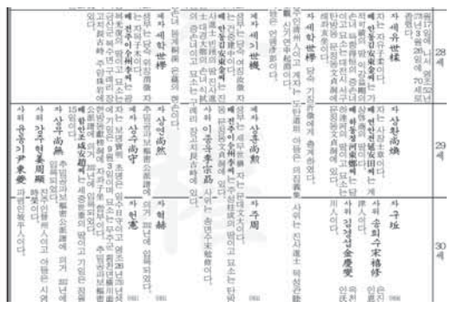
조선 후기 여성들의 지위는 대체로 낮아졌다. 이전에는 여성들도 조상제사에 참여하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후에는 그 역할이 제한되었다. 여성들이 담당해야 할 책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조상을 받드는 제사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들이 제사에 참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되었고, 대부분 제물 준비만을 주관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유교 사회에서 여성들은 제기와 제물을 준비하고 장만하는 보조적인 역할만을 맡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들의 소외와 남녀 간의 차별을 더욱 심화시켰다.

하지만 안동 권씨 부인은 이 시대를 살아가며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 그녀는 천주교를 믿고, 윤지충과 함께 교회를 참여했다. 천주교는 유교와는 다른 시각으로 여성의 지위를 바라본다. 천주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것은 성별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진 것이라고 믿는다.

안동 권씨 부인은 천주교를 믿으면서 이러한 가르침을 받았다. 그녀는 윤지충과 함께 교회에 참여하며, 교리를 배우고, 예배를 지휘하는 등 활동을 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인식을 바꿨다. 이러한 행위는 그 당시의 사회적 관습과 유교적 가치관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그 당시 사회적 관습과 유교적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 결과, 그녀는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다. 이러한 안동 권씨 부인의 사례를 통해,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사회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19세기 조선후기 천주교 여성신자인 안동 권씨 부인이 새로운 모자관계를 추구하여 윤지충과 조카 권상연을 자신의 아들로 서술하고, 유교에서 설명하는 모자관계와는 크게 다른 예수와 마리아의 모자관계를 지니며 천주교의 가르침을 전파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예수와 마리아의 모자관계는 수직적인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를 지니며, 자식이 부모의 소유가 아님을 고백할 만큼 달라지게 만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당시의 천주교 여성신자들이 자신을 스스로 이해하는 관점을 달리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드러내며, 이후 조선후기 천주교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권씨 부인 계보

29 권상연(權尙然)-28 권세학(權世학)-27(생부) 권위징(權渭徵)-26권이용(權以鏞/생원)-25권기(權愭/장령)-24권시(權諰/탄옹공/승지,찬선,한성부우윤)-23 권득기(權得己/예조좌랑, 공조참판/생부 권극례 이조판서)-22권극관 (權克寬/선공감역)-21 권덕유(權德裕/영/증 좌참찬)-20 권박(權博)-19권령(權齡/공조참의)-18권실(權實/참봉)-17권순(權循/이조참판)-16 왕중귀(王重貴/復姓/대사성)-15 왕후(王煦/고려 감찰대부)-14 권보(權溥)

권씨 부인은 권기징의 딸이니 권위징의 5촌 조카이다. 권세학이 당숙 권기징에게 양자로 간 것이다. 권상연과 고모 권씨부인은 실제는 5촌 간이다.

그리고 추밀공파 고려말 9봉군으로부터 시작한 명문가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미 다른 분의 소개에서 나온바 생략한다.

다시 말해서 權門은 새로운 조류에 있어서 항상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불교시대에는 고려 후반 추밀공파,복야공파의 상경전 까지는 없고, 승려도 거의 알려져 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유학(儒學)은 권희.권근등으로 부터 선도했고, 당시 민족종교적인 단군에 대한 권근의 어제시나 권람의 응제시주등의 글은 매우 선도적이었다. 천주교와 사회주의의 도입에는 선구자가 나오지만 기독교 목사,재벌 이런 것에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돈과는 별로 인연이 없는 씨족이나 그 반대급부는 많다고 본다.

이제 여권해방 까지는 아니지만 종교를 통한 여권신장의 선도적 역할에 권문의 며느리가 있음을 기억해야하고 대전권의 남인,소론 파벌의 잠룡(潛龍)들이 오늘날 일어난 것도 우연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녀와 그 아들들과 조카를 위하여 졸시를 올린다.

權夫人倡婦權(권씨부인, 여자의 권리를 제창)

眞虛 權五澈 吟

衰儒野士 智者優
몰락한 유학자 죽림의 선비 식자우환이라
奉供玄帝 有緣由
하느님 천주교를 믿는 건 다 이유가 있네
權氏賢閤 倡女利
권씨부인이 여인들의 권리를 부르짖은 건
致祭苦勞 婦若囚
제사준비 여인을 죄수처럼 만드는 것이라
雅各保羅 孃子同
야곱과 바오로 조카와 아들이나 구별없어
要遵循善 上神求
하늘법을 고이 지키면서 천주를 부르는다
信心方正 虛儀棄
믿음은 방정하여 허례를 버리려하는 구나
基督瑪麗 等價逑
예수와 마리아 모자간이나 동등한것 같이

글 권오철 기자

강릉 대사성공종회 제42차 정기총회 개최

단오(端午)인 지난 6월 22일(음력 5월 5일) 강릉 복야공파 대사성공종회(諱 悰, 大司成公宗會)는 전임 권오록 회장과 신임 권오형 회장을 비롯한 족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2차 정기총회 및 화수회(花樹會)를 강릉시 은행나무길 9 에 있는 유서 깊은 보진당(保眞堂)에서 개최하였다.

권혁렬 총무의 사회로 식순에 의거 진행되었으며 국민의례, 시조님에 대한 망배를 시작으로 회장 이·취임식, 권순철 강릉종친회장의 격려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의 축사에 이어 총무의 종무 활동 보고, 권승전 감사의 감사보고와 권혁동 재무의 결산보고 및 예산안 보고가 있었다.

특히, 권현주 부회장이 진행한 기타토의에서는 대사성공종회 족보(임인보) 및 가승 발간에 대한 정산과 족친의 염원이었던 휘 의(諱 義, 16世) 단소(壇所) 건립이 결의되었고 2023年 추향 전에 건립하기로 하였다.

이날 권오형 신임회장은 대사성공종회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족친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어서 2부 만찬회에는 종회에서 준비한 음식을 함께하며 족친간에 정겨움을 나누는 훈훈한 일정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대사성공종회 권혁렬

권순창 청송장학회 이사장, 음성 무극중 후배들에게 18년째 장학금 전달

권순창 청송장학회 이사장(59)이 지난 7월 13일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중학교에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 10명에게 각 30만원씩 모두 3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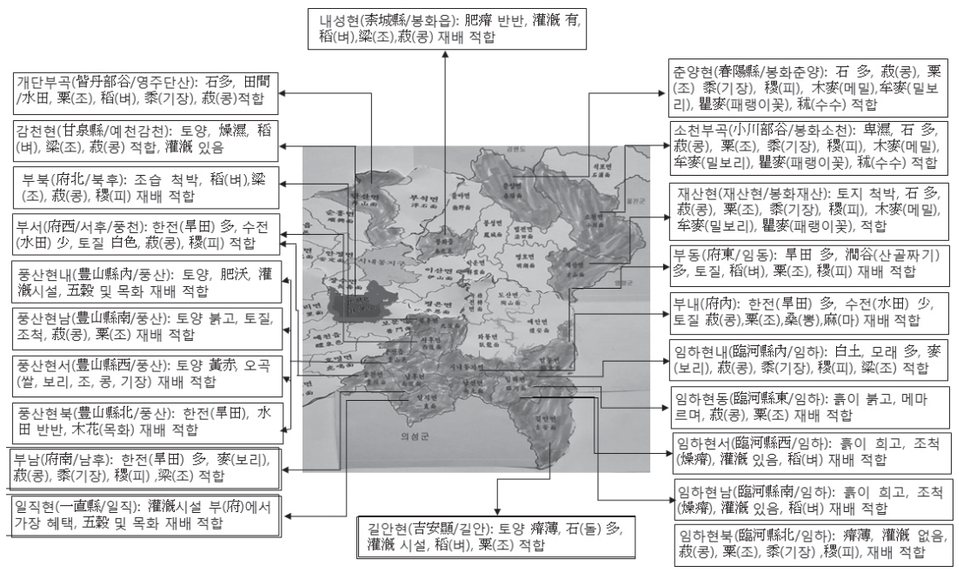
권순창 이사장은 음성군 금왕읍 내곡리 출신으로 무극중학교 32회 졸업생이다.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한 경험을 바탕삼아 2006년 500만원을 시작으로 매년 300만원씩, 18년째 모두 5600만원에 이르는 장학금을 고향 후배들에게 전달해 오고 있다. 권 이사장은 IBK기업은행 오산지점장을 거쳐 경기남부지역본부 현장 교수직을 맡고 있다.

권행완 편집국장

권기(權紀)의 생애(생애)와 '영가지(永嘉誌)'의 재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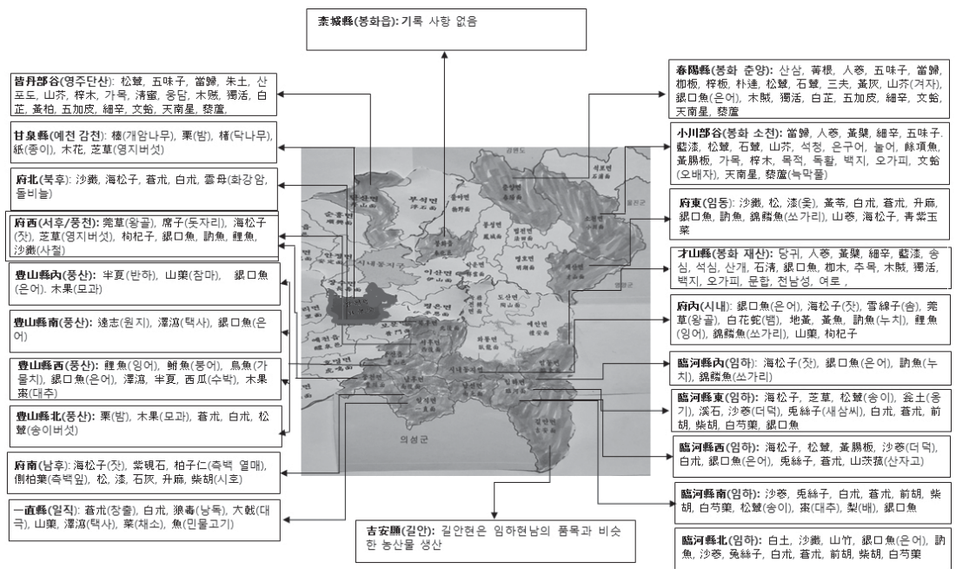
: 2024년 서세逝世 400년 추모기념 학술대회에 앞서

권기대(權奇大, 공주대 교수, 경영학박사, 복야공 26세손)
권기백(權奇栢, 대덕대 교수, 공학박사, 복야공 용만 주손)



☞주1 (좌측): 안동대도호부 11개 현 ☞주2 (하단): 남선면은 관찰부 소속이므로 빠져 있음.

〈그림. 2〉 조선시대(1608년) 안동지역의 토품 현황



〈그림. 3〉 조선시대 안동의 토산(로컬푸드) 브랜드 생산 현황

권기(權紀)(1546/명종1년~1624/인조2년, 79세)는 자(字)가 사립(士立), 호(號)는 용만(龍巒)이다. 아버지는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추증된 권몽두(權夢斗)의 차남(次男)이다. 어머니는 영양남씨(英陽南氏)로 충순위(忠順尉) 남한립(南漢粒)의 딸이고, 부인은 진주하씨 첨지(僉知) 연(漣)의 딸에서 1남 1여를, 의성김씨 참봉 김사현(士賢)의 딸로부터 1남 2여를 뒀다. 사후에 2권 1책의 '용만집(龍巒集)'이 전한다. 그의 삶에 영향을 준 3인은 독락팔곡(獨樂八曲)과 평시조 연작인 한거십팔곡(閑居十八曲)의 산림처사(山林處士) 송암(松巖) 권호문(權好文)(1532년~1587년)의 문인이고, 서애 유성룡, 학봉 김성일의 제자이었다.

'영가지'는 안동지역의 정치,·경제·자연·교육·종교·문화·사회, 그리고 지역자원 등의 지리적 현상을 분류 및 연구하여 기록한 책판이다. '영가지'의 편찬 배경은 ①안동지역의 통치 자료로서의 수월성 확보, ②임진왜란 경과 후 혼란한 사회질서의 회복 및 안정, ③재지사족들의 여론 주도 및 지역 영향력 제고, ④지역 전통문화의 유지 및 애향심 고취의 발로, ⑤외침으로 유비무환의 군사적 방어 강화, ⑥성리학적 윤리관을 토대로 변모해가는 향촌질서 관리의 교화적 수단 활용 등이다. 서애 선생이 권기를 지목하고 지지 편찬 권유의 배경은 권기가 '권씨세보'의 편수 경륜을 높이 평가한 결과다.

'영가지'가 '함주지'와 달리 차별적 특징을 비교·분석 평가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지(地誌)의 체계에서 '영가지'는 권기가 편찬의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8권 4책(1608년)을 7년의 성상 끝에 완성되었다. 반면, '함주지'는 조선시대 정구가 함안군의 군수로 부임하는 1578년 당해에 연혁·인문지리·행정 등을 수록하여 1권을 발간한 관찬의 성격을 지닌 지방지로 평가된다.

둘째, '영가지' 및 '함주지' 간의 브랜드 지지(地誌) 체계를 비교·분석해보면, '영가지'는 8권 4책이며, 50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반면, '함주지'는 1책의 단행본이고, 1권 내에 40개 항목의 편목을 반영·편찬되었다. 두 권 공히 각 권마다 유사한 주제를 다루었으나 '영가지'가 더 식별성, 차별성, 가독성에서 우월성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영가지' 및 '함주지' 간의 브랜드 관계 맥락에서 전자는 '함주지'의 체계를 활용하였고, '함주지'의 40개 항목 편목을 50개 항목으로 재편성 세분화하였다. '영가지'에 추가된 10개의 항목은 노예, 토품, 진관, 서당, 향사당, 장점(匠店), 도로, 지당(池塘), 임수(林藪), 장시(場市) 등이다. 후자는 '동국여지승람'을 모방하였으나 항목 설정이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없는 경사상거, 각리, 호구, 전결, 군기, 제언, 관개, 임관, 문과, 무과, 사마, 정표, 책판, 총담 등의 항목이 첨가되었다.

넷째, '영가지'는 '함주지'와 달리 10개의 항목에서 토품과 토산이 차별적이고 독보적이다. 〈그림. 2〉의 토품은 11개 현의 기후, 땅의 비옥(肥沃)/척박/건즙/돌/황토 정도, 관개수로(灌溉水路) 등을 언급하면서, 쌀, 보리, 콩, 목화, 기장, 조, 피. 뽕, 마, 메밀, 밀보리, 패랭이꽃의 재배 등을 언급하였다. 〈그림. 3〉의 토산도 11개 현의 농·특산물—산약, 송이, 영지, 시호, 백출, 당귀, 오가피, 배, 모과, 구기자, 오미자, 인삼, 산삼, 밤, 대추, 더덕, 독활, 백지, 석청, 수박 등 총 88개를 언급하여 한약재의 주산지로 추정된다.

다섯째, 권기의 '영가지'는 당시 앞서 편찬한 관찬(官撰)—'신찬팔도지리지'(1432년),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동국여지승람'(1481년),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였다. 즉, 오늘날에도 논문이나 보고서 작성에 단순히 글로서 표현하는 것 보다 그림이나 표를 활용하면 가독자의 편의성 제공과 공감을 얻듯이 안동대도호부의 11개 각 현의 지도를 직접 그려 반영하고, 화룡점정(畵龍點睛)으로 그나마 권기의 마음을 흡족해 하였다고 한다.

권기의 '영가지'는 다음과 같이 통섭(統攝, Consilience)학의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융복합적 학문의 사료적 가치를 담고 있다.

첫째, 오늘날 K-문화가 글로벌적으로 관심을 점증시키고 있는 시점에서 안동문화—한 사회의 주요한 행동 양식이나 상징 체계—를 잉태시키고, 안동문화를 세계인들이 주목받는 지역사의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1995년부터 본격적인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아, 지역의 분산된 자산을 조선시대 때부터 정리하였다는 점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자산의 활용 등에서 시대적 경쟁우위 의 요인일 수 있다.

셋째, '영가지'는 안동지역의 민속적 풍속과 인물 총담(叢談)을 담고 있어서 오늘의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lifestyle)과 직결된다. 즉, 오늘날의 기업들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을 이미 조선시대에 시도되었다는 역사적 증빙의 자료이다.

넷째, '영가지'에 언급된 88개 품목의 농·특산물은 오늘날 주부들로부터 매력적인 안전한 먹거리와 관련된 지리적 표시(GI), 국가인증마크와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농업경영학 관점의 가치도 적지 않다.

다섯째, '영가지'는 오늘날 경영학의 브랜드 분야에 적용해 볼 때, 편찬자 '권기' 라는 이름(naming), '영가지' 책판, '영가지'내의 권2에서의 산천, 토품, 토산의 농·특산물 브랜드를 처음 적용한 개척자인 동시에 실용학자로 평가할 수 있다.

여섯째, '영가지'는 오늘날 지방화 시대를 맞아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안동학의 출발을 선언하는 기초 도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함과 아울러, 안동이라는 지역명의 브랜드 자산을 응용하여 안동찜닭, 안동소주처럼 창업(start up)에도 큰 기여를 제공하고 있다.

일곱째, '영가지'는 권기 및 권행가를 비롯하여 10인의 지식인들이 참여한 집단지성의 도서이나 사실 여기에 언급되지 않는 지역의 재지사족들이 적지 않다고 볼 때, 일종의 연구책임자 권기의 리더십과 참여자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간과할 수 없다.

여덟째, '영가지' 편찬의 시간적 범위는 권기가 56세(1602년) 때 집필하여 62세(1608년)에 이르러 완성시킨 삶의 노작(勞作)이다. 즉, 오늘날의 연구 프로젝트로 견주어 환산해 본다면, '영가지'의 가치는 약 30억원으로 추정된다. (2,784,843,750원=【[2,227,875,000원=14억[(권기(56세)/(년봉 1억(국립대학 교수)+권행가(49세)/년봉 1억)]×7년/(영가지 편찬기간)+7억[1억 추정/년 1억 중장기 프로젝트 예산(11개 현 현장답사, 교통비, 식비, 인쇄비, 회의비, 11개 현의 재지사족 담당자/인당) ×7년]+ 1.2억원[10인/ 1607년 당해 최소 6개월 편찬 작업× 2백만원/인당 연구비 지급/월 기준]+0/(정구는 공무원 급여 수령으로 무급)+7,875,000원=[25,000원 = 책값 10만원/권당 500쪽('영가지' 국역본/1991년 기준, 7권 4책)/(25%의 인지세)]×315년/('영가지' 발간년도 1608년부터 2023년)]】+【556,968,750원〔25%/(앞의 추정금액 반영 '영가지'의 안동문화 기여도/보수적 추정치)〕】

다만, 지금까지 권기의 '영가지'는 오늘날의 연구자들이 인용할 때, 참고문헌에 단순히 권기의 이름을 삭제하고 '영가지'를 표기하는 것은 사실 표절이 될 수 있으므로, 정식으로 이름(연도)_도서이름_출판기관〔권기(1608), '영가지', 안동시〕의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 둘째, '영가지'는 다소 지역의 학자들에 의해 조명되었을 뿐, 다른 지역에서도 '영가지'의 가치응용 확장이 요구된다. 셋째, 권기의 스승인 송암 권호문 선생을 숭모하여 청성서원(靑城書院) 설립을 최초로 발의하였음에도 청성서원의 소개란에 그의 이름이 누락되어 있다. 어떤 일이든 시작없는 결과를 찾을 수 없듯이 무엇을 바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권기(權紀)의 견이사의(見利思義) 정신을 교훈으로 깊이 새기고 실행해야 한다.